

| 학습영역 | 작품 | 작가 | 쪽수 |
|----------|-------------------|-------|----|
| 개념학습 01강 | 봄은 고양이로다(7) | 이장희 | 1 |
| 개념학습 01강 | 올타리 밖(7) | 박용래 | 3 |
| 개념학습 02강 |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11) | 작자 미상 | 5 |
| 개념학습 02강 |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8) | 작자 미상 | 8 |
| 개념학습 03강 | 메밀꽃 필 무렵(10) | 이효석 | 10 |
| 개념학습 04강 | 박씨전(10) | 작자 미상 | 16 |
| 개념학습 05강 | 정직한 사기한(9) | 오영진 | 21 |
| 개념학습 06강 | 조침문(10) | 유씨 부인 | 26 |
| 개념학습 07강 | 유리창(10) | 정지용 | 30 |
| 개념학습 08강 | 춘향전(12) | 작자 미상 | 35 |
| 개념학습 08강 | 수정가(7) | 박재삼 | 42 |
| 개념학습 09강 | 무너진 극장(0) | 박태순 | - |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1년 인터넷 수능 / 해설 1쪽)

(가)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生氣)가 뛰놀아라.
 -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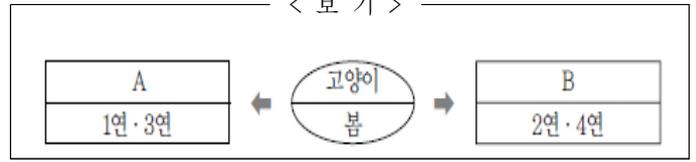
(나)

반딧불을 모아 / 눈을 비칠 수는 있으나,
 눈을 녹일 수는 없다.
 그 눈을 모아 / 너의 언어를 읽을 수는 있으나,
 너의 언어를 태울 수는 없다.
 이 치운 겨울에 / 말들은 왜 심장에 뿌리를 두지 않는가.
 얼음 꽃은 햇볕에 아름다우나
 얼음 꽃은 햇볕에 녹아 버릴 것이다.
 형설로 배운 / 너희들의 언어는
 추상에서 아름다움으로 뒤바꿈질을 한다.
 끓는 핏속으로 들어가
 보대끼는 금속처럼 불꽃을 튀기지는 못한다.
 점잖은 수염을 바라보며 / 자못 머뭇거리고 있다.
 고원의 아이들과 어울려 노래하지 않는다.
 왜 타지 못할까? / 왜 태울 줄을 모르는가?
 너희들의 언어는 기교의 가지 끝
 서릿발로 치운 이 겨울에...
 - 김현승, 「형설(螢雪)의 꿈」

1. (가)~(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현재 시제를 사용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③ 화자의 시선이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 ④ 대화체를 사용하여 독자를 시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이는 구조를 보인다.
- ⑤ 특정한 조사나 어미의 반복으로 시에 운율적 요소를 더한다.

2. <보기>는 (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제시한 표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과 고요히 다문 ‘고양이의 입술’이 봄의 곱고 부드러운 느낌을 전해 줌.
- ② B에서 금빛이 맴도는 ‘고양이의 눈’과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이 봄의 활기와 생명력을 느끼게 해 줌.
- ③ A와 B에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관찰한 고양이의 모습이 객관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 ④ A의 정적인 이미지와 B의 동적인 이미지가 번갈아 제시되면서 봄의 다양한 모습이 잘 드러남.
- ⑤ A와 B는 모두 봄의 속성들이 마치 고양이의 몸의 각 부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3. (나)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광복, 6·25, 4·19 등의 격동을 거치면서도 김현승 시인의 시적 본령은 여전히 주지적 순수 서정시였다. 그러나 그는 막무가내로 순수만을 찾는 순수주의자는 아니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 독특한 개성을 지녔고, 고독으로써 세속적인 것과 대결하려는 의식을 보이며, 부당한 운명으로 고통을 주는 신에게까지 대결의 자세를 보여 주는 등 진실한 시인으로서의 진지한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점은 당대의 무슨 과 무슨 과 하는 여느 시인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 ① ‘반딧불’은 눈을 비칠 수만 있지 녹일 수는 없으므로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어. 그러므로 ‘반딧불’로 이루어진 시 작업이 진실한 시가 되기는 어렵지.
- ② ‘심장’에 뿌리를 두지 않고 ‘얼음 꽃’으로 이루어진 언어는 아름답긴 하지만 살짝 비친 겨울 햇빛에도 금방 녹아 버려. 시인은 기교가 앞서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 ③ ‘끓는 핏속’에 파고드는 언어는 ‘점잖은 수염’에서 머뭇대는 언어와 대조를 이루며,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시정신을 잘 보여 주고 있어.
- ④ ‘고원의 아이들과 어울려 노래’하지 않는 시야말로 고독한 자세로 세속적인 것과 대결하려는 의식을 보여줌.
- ⑤ ‘서릿발로 치운 이 겨울’은 격동의 시기를 대하는 시적 화자의 현실 인식을 잘 보여 주고 있어.

[04~0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년 국어 독해의 원리 / 해설 1~2쪽)

①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의 줄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쪽 뺨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눈이 내린다
봄이라서
봄빛처럼 포근한 눈

담장 위에 쌓이는 봄눈
나무 위에 쌓이는 봄눈
마당 위에 쌓이는 봄눈

그리고
마루에서 졸다가 깬
눈을 하고 앉은
새끼 고양이의 눈 속에도
내리는 봄눈

- 오규원, 「포근한 봄」

- ① 각 연이 유사한 통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② 고양이의 신체 부위에 봄의 특징을 실어서 표현하고 있다.
- ③ 동일한 행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한다.
- ④ 봄의 생명력과 포근한 분위기를 고양이와 결부하여 표현하였다.
- ⑤ 봄의 따사로움과 생명력이 겨울과 관련된 소재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5. ㉠과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붙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졌다

㉠ 바람은 넘실 천 이랑 만 이랑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 김영랑, 「오월」

- ① ㉠과 ㉡ 모두 시각적 이미지만 나타난다.
- ② ㉠과 ㉡ 모두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③ ㉠에는 직유적인 표현이 ㉡에는 의인화한 표현이 나타난다.
- ④ ㉠에서는 봄의 부드러움이 ㉡에서는 봄의 부끄러움이 강조되고 있다.
- ⑤ ㉠에서는 꽃가루와 고양이의 조화가 ㉡에서는 바람과 보리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6. 윗글에서 비유적 표현이 쓰인 구절을 쓰시오.

7. 윗글은 봄의 ()을 고양이의 () 부위와 관련지어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다.

정답 및 해설

• 개념학습 •

정답

| | | | | | | | | | |
|-----|----|-----|----|----|----|----|----|-----|---|
| 1 | ⑤ | 2 | ③ | 3 | ④ | 4 | ④ | 5 | ③ |
| 6 | 해설 | 7 | 해설 | 8 | ③ | 9 | ② | 10 | ② |
| 11 | ③ | 12 | 해설 | 13 | 해설 | 14 | ⑤ | 15 | ② |
| 16 | ③ | 17 | ④ | 18 | ① | 19 | ④ | 20 | ① |
| 21 | ③ | 22 | ② | 23 | ③ | 24 | ⑤ | 25 | ⑤ |
| 26 | ② | 27 | ④ | 28 | ③ | 29 | ① | 30 | ⑤ |
| 31 | ② | 32 | ① | 33 | ① | 34 | ② | 35 | ② |
| 36 | ③ | 37 | ③ | 38 | ⑤ | 39 | ⑤ | 40 | ④ |
| 41 | ⑤ | 42 | ④ | 43 | ② | 44 | ④ | 45 | ④ |
| 46 | ⑤ | 47 | ③ | 48 | ③ | 49 | ⑤ | 50 | ⑤ |
| 51 | ④ | 52 | ④ | 53 | ③ | 54 | ② | 55 | ⑤ |
| 56 | ② | 57 | ② | 58 | ⑤ | 59 | ① | 60 | ② |
| 61 | ② | 62 | ② | 63 | ④ | 64 | ③ | 65 | ④ |
| 66 | ⑤ | 67 | ⑤ | 68 | 해설 | 69 | 해설 | 70 | ④ |
| 71 | ④ | 72 | ④ | 73 | 해설 | 74 | ② | 75 | ③ |
| 76 | ⑤ | 77 | ④ | 78 | ① | 79 | ② | 80 | ① |
| 81 | ④ | 82 | ② | 83 | ② | 84 | ② | 85 | ④ |
| 86 | ⑤ | 87 | ② | 88 | ① | 89 | ① | 90 | ④ |
| 91 | ② | 92 | ⑤ | 93 | ⑤ | 94 | ③ | 95 | ⑤ |
| 96 | ④ | 97 | ④ | 98 | ② | 99 | ⑤ | 100 | ② |
| 101 | ③ | 102 | ⑤ | | | | | | |

해설

1.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에 ~도다’와 같은 구조의 문장이 각 연마다 반복되어 형식상으로는 단순하게 보인다. 그러나 각 연의 내용을 살펴보면, 1행에서는 고양이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2행에서는 그와 관련된 봄의 속성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음 볼 수 있다. 즉, 다양한 이미지를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의 문장 속에 제시함으로써 내용과 형식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한편 (나)는 ‘~있으나 ~없다’와 같은 통사 구조의 문장과 ‘~는다’와 같은 어미의 반복을 통해

유사한 내용을 드러냄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는 한편,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시의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의 1연은 고양이의 털을 봄의 향기와 관련지어, 2연은 고양이의 눈에서 봄의 불길을 연상하여, 3연은 고양이의 입술에서 봄의 줄음을 읽어 내어, 4연은 고양이의 쪽 뺨은 수염에서 봄의 생기 및 생명력을 연상하여 표현하고 있다. 1연, 3연이 정적인 고양이의 모습을 바탕으로 봄의 특성을 이끌어 냈다면, 2연 4연은 동적인 고양이의 모습을 바탕으로 봄의 특성을 연상해 내고 있다. 따라서 <보기>는 정적인 내용과 동적인 내용을 구별 지어 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고양이의 모습을 잡아 내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에 걸쳐 다양한 고양이의 모습을 관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3연의 졸고 있는 듯 가만히 있는 고양이의 모습과 4연의 수염을 쪽 뺨친 고양이의 모습이 동시에 관찰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화자가 고양이의 모습을 관찰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하여, 고양이의 모습과 봄의 속성을 관련시킨다는 점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출제의도] 시대적 배경과 관련한 시의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흔히 김현승 시인은 ‘고독의 시인’, 또한 순수 서정시의 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보기>에서는 김현승 시인의 다른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시인의 면모는 (나) 시에서 ‘치운 겨울’, ‘서릿발’이 서린 겨울날 기교 중심의 시만을 쓰는 시인들을 비판하는 것과 연결 지을 수 있다. 추상적인 이념이 시어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젊은 심장으로 들어가 그 피를 끊게 할 것인데, 기교를 통해 곧장 아름다운 시어로 변모해 버려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에 대해 시인은 4연에서 기교가 앞선 시는 ‘불꽃을 튀기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고원의 아이들과 어울려 노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고원의 아이들’과 더불어 노래할 수 있는 순수한 시야말로 시인이 추구하는 바인 것이다.

4.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봄의 생명력과 포근한 분위기를 고양이와 결부하여 표현하였다. <보기>는 봄논의 포근함을 고양이와 결부하였고, ‘봄은 고양이로다’는 봄의 생명력을 고양이와 결부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각 연이 유사한 통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봄은 고양이로다’이다.
- ② 고양이의 신체 부위에 봄의 특징을 실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봄은 고양이로다’이다.
- ③ 동일한 행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을 형성하는 것은 <보기>이다.
- ⑤ 봄의 따사로움, 생명력을 겨울과 관련된 소재인 눈과 관련지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보기>이다. 이 글에는 겨울과 관련된 소재는 없다.

5.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의 ‘꽃가루와 같이’에는 직유적인 표현이 ㉡의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에는 의인적인 표현이 나타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시각적 이미지 외에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 ② ㉠에는 촉각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에서는 고양이 털의 부드러움에 봄의 향기가 어리운다. 이를 봄의 부드러움으로 보기는 어렵다. ㉡에서는 보리의 생명력이 강조되고 있다.
- ⑤ ㉠에서는 꽃가루가 체재가 아니라 고양이의 털의 부드러움을 빗댄 보조 관념에 해당한다.

6. [모범답안] 꽃가루와 같이, 금방울과 같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에서 비유적인 표현이 쓰인 구절은 ‘꽃가루 와 같이’, ‘금방울과 같이’이며 둘 다 직유적인 표현이다.

7. [모범답안] 생명력, 신체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글은 봄의 생명력을 고양이의 신체 부위에 연결하여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다.